

## 남부경찰서 아동안전보호관 위촉

### 아동성폭력 예방활동에 앞장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보호관' 위촉식이 지난달 열렸다.

남부경찰서(서장 김주전)는 지난달 29일 3층 중회의실에서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아동안전보호관'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안전보호관으로 위촉된 491명의 남·수영구 지역 통장 전원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위촉식에서 김주전 경찰서장은 통장대표로 참석한 30여명에게 아동안전보호관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영상을 시청하며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보호관은 앞으로 아동안전보호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과 우범자를 집중 관찰하는 등 경찰의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이밖에도 범죄 발견 시 즉각적인 112신고 체계 확립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동안전 자킴이로서의 역할 동참을 호소하며 아동성범죄 예방대책 홍보에 적극 나서게 된다.

## 후불제 복지교통카드 내달 3일 도입

부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내달 3일부터 후불제 복지교통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후불제 복지교통카드는 신용카드와 신분증, 교통카드 등을 함께 가지고 다녔아 하는 불편을 1장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발급대상자에 따라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만 무임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신분증,

LPG세액환급 기능 등을 갖춘 신용카드 겸용 다기능 카드다.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2개사이며 신한카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어르신교통카드와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보훈대상자 복지카드 등 4종을 발급한다. 롯데카드는 어르신교통카드와 장애인용 복지카드 등 2종을 발급한다. ☎607-4561

## 남구漫評

채규중



“주유 완료”

### ■ 단산

#### 인구주택조사요원 모집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조사요원을 9월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654명이며 자격은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2005년 총조사 참여 경험자와 조사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직접 등록하거나 구청 기획감사실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찾아 채용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조사는 11.1~11.15일까지 실시된다. ☎607-4031~7

#### 스포츠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스포츠를 통한 총체적 자기개념 강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추가로 5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초등학교생이며 3원만 부담하면 골프, 하키 등 개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12개월간이며 접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607-4314

#### 옥상조경사업 대상지 신청

남구는 2011년도 건축물 옥상조경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9월7일까지이며 대상 건축물은 옥상 녹화 대상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곳 등이다. 예산은 공사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구청 건축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607-4591

#### 바르게 사는 주부교실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회장 배도성)는 8월26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회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르게 사는 주부교실'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조상영 웃음치료가사 '인생을 바꾸는 웃음의 힘'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612-5743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 쌀 김치류 모든 음식점에 적용

### 오리·배달용 치킨도 원산지 표시해야

### 거래명세서 영수증 보관 의무화

이번 달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쌀과 김치류의 경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가공김치의 경우 배추에만 적용되던 것을 수입 김치속, 다대기, 고춧가루, 마늘 등 제2원료까지 확대할 수 있다. 통신판매 농식품의 경우 수산물과 가공품에만 국한 되던 것이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음식점의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처음 적용되며 기존의 대규모 점포를 직영하는 경우 외 입점자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하위로 표시했을 경우 점포의 명칭과 주소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소비자를 기만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음식점에 대한 6개월간의 축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을 의무화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다.

한편 원산지 표시방법은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계산단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지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수막 등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 킷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00만원 이내였던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을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했으며 음식점에서 축산물 관련 식자재 구매에 따른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6개월간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원산지를 하위로 표시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607-4485

### 10월1일부터

### 지방세 납부 편리해진다

앞으로는 남세고지서 없이도, 또 전국 어디서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부 정책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남세고지서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세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별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더욱 편리해진다.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컸지만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내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다.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할 때도 따로 입력사항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607-4182

### 건강운동대학 개설

남구보건소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4기 건강운동대학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는 만60세~75세 어르신 35명이며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들고 이번 달 말까지 보건소 2층 건강체험실을 찾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운동대학은 9.7~11.1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보건소 라마체조실에서 열린다. ☎607-645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동에서 발급

### 인터넷 지적민원 서비스 확대 실시

그동안 구청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지적(임야)도 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집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10월부터 인터넷 지적민원 발급 및 동주민센터 창구 확대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민원 서류인 지적(임야)도 등본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구청 민원실은 물론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인터넷 '부산광역시 한국토지

정보시스템(KLIS)홈페이지'와 '정부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해 안방 또는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 등록만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지적(임야)도 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팩스로 받을 경우에는 도면상 경계식별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구청관계자는 "서비스 확대 실시로 인터넷이나 동주민센터 창구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적관련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607-4774

## 무료 부동산 중개 서비스제 실시

남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남구지회와 손을 잡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희망나눔 무료이용 중개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홀로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으로 전·월세 4천만원 이하의 집을 구할 때 해당

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개업소는 대전공인중개사사무소(문현지역권), 동진공인중개사사무소(용호지역권), 대광부동산중개인사사무소(대연지역권), 부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연지역권), 동남공인중개사사무소(감만·우암·용당지역권) 등 5곳으로 해당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권역별로 지정됐다. ☎607-4765



남구청 볼링팀 준우승 남구청 볼링팀(감독 이승영)이 지난 8월 막을 내린 제15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남녀볼링대회 3인조 경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허남식 시장은 축하전문을 보내왔다.



대연지역 조정위원회 대연지역 6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날 28일 대연1동주민센터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발굴을 위한 대연지역 주민자치회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청소년 어울마당 남구는 지난날 29일과 30일 이틀간 가평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남구소년소녀합창단 단원과 학부모 등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오록도 등대체험 남구는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와 함께 지난 9일 오록도 등대섬에서 감만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록도 등대체험 일일환경학교를 열었다.



오록도등대체험 남구오록도여성합창단(단장 김옥련)과 후원회(회장 박재본)는 지난 13일, 김무성 국회의원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단합대회를 가졌다.



학부모와의 간담회 이종철 구청장과 김정훈 국회의원원은 지난 16일 문현여중에서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갖고 노후된 학교 벤치에 페인트칠을 하며 지역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나섰다.



가족캠프 프로그램 남구 드림스타트센터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합치골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용 학생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열었다.



태극기 달기 캠페인 새마을운동부산남구지회(지회장 안상호) 소속 지도자 40여명은 지난 12일 대연교차로에서 광복절 태극기달기캠페인을 열고 차량용 태극기 1,000개를 무료로 보급했다.